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79期(2026.02.27) WWW.MINGHUI.ORG

한글판 1043호 minghui.or.kr



▲ 2월 21일 정월 초닷새, 뉴욕과 인근 지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예년과 같이 뉴욕시 플러싱(Flushing)에서 열린 연례 중국 신년 대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천국악단, 용춤, 사자춤, 깃발, 선녀, 꽃차 등 10여 개의 팀이 여러 블록에 걸쳐 이어졌으며, 시민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선사했고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주요 내용

- 【수련】 선원 홍보 중의 의구심과 사고(思考)
- 【수련】 갈등 속에서 교란 작용을 일으키지 말라
- 【수련】 사람 마음으로 대법과 사부님을 수호하지 말자
- 【법회】 천국악단에서의 나의 수련 체득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1

■ 수련교류

“오랫동안 여러분이 배포하는 자료를 못 봤어요” 13

선원 홍보 중의 의구심과 사고(思考) 17

갈등 속에서 교란 작용을 일으키지 말라 20

최근 RTC 플랫폼 풍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1

중국 수련생들에게 ‘원클릭 봉쇄 우회’ 항목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함 · 26

사람 마음으로 대법과 사부님을 수호하지 말자 31

■ 문화예술

노아의 방주와 눈 붉어진 돌사자 이야기 비교 42

■ 법회특간

천국악단에서의 나의 수련 체득 45

통증, 연공, 갈등은 안으로 찾는 기회 53

마음가짐을 바꾸고 원망을 내려놓다 59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월 21일 병오(丙午)년 말띠해 정월 초닷새, 미국 뉴욕과 인근 지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예년과 같이 뉴욕시 중국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Flushing)에서 열린 연례 중국 신년 대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파룬궁수련생들의 대열은 성대하고 장중하며 빛과 색채가 넘쳐흘러 여러 블록에 걸쳐 이어졌으며, 시민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선사했다.

뉴욕의 한 중학교 교무주임인 마리아나 파파다토스(Mariana Papadatos)는 파룬궁수련자 방진이 퍼레이드 중 가장 질서 정연한 대열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동시에 그녀가 이곳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진정한 문화의 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녀는 파룬궁 꽃차를 향해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감탄하며 휴대전화로 끊임 없이 사진을 찍었다. 중국에서 온 거(葛) 씨는 파룬궁 퍼레이드 행렬에 크게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선(善)을 향하는 법입니다. 그들(파룬궁)이 바로 중국 문화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국가와 민족에 희망이 생겼고, 깨달았고, 각성했고, 선을 향하게 됐습니다.”

설 기간인 2026년 2월 17일부터 선원(神韻)예술단 8개 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한국 등 6개국 13개 도시에서 39회 공연을 이어갔다. 관객들은 선원의 예술적 수준은 초월적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이자 마음의 세레라고 찬탄했다. 또한 전 세계인이 봐야 할 공연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러 국가의 주류 관객들은 “선원 공연은 시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매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매우 감동적”이라며 “선원은 완벽함과 영혼, 신성(神性)의 결합이며 이 지구상에서 평화를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국회 세르지오 라스트렐리(Sergio Rastrelli) 상원의원은 세 번째 선원 관람 후 “저는 이미 선원의 열렬한 팬입니다. 화려하고 탁월하며 가슴 벅찬 공연으로 중국의 고대 문화를 비범하게 보여줬습니다. 공산주의 이전, 공산주의가 없는 중국을 보여줬는데 이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문화적, 정신적 유산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원 예술가들은) 춤과 음악을 통해 모든 자유와 전통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맞서는 비범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소중히 여겨야 할 순간이며 이탈리아와 유럽은 선원예술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원을 보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정교한 예술을 감상하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모든 이야기와 장면 뒤에 심원한 의미가 담겨 있어 끊임없이 체득해야 선원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 맥앨런시 하비에르 비얄로보스(Javier Villalobos) 시장은 공연 관람 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깊은 영광”이라며 “극도로 훌륭하고 충격적인 공연”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원이 전통문화를 부활시키고 박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점을 찬사했다. “이런 공연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면서 동시에 배우고 생각하게 합니다. 극장에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특히 프로그램 중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받아 두 눈이 실명됐다가 결국 광명을 되찾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 고통과 억압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 여전히 박해가 존재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마산대학교 미술학과 석점덕 명예교수는 관람 후 “감동입니다! 정말 뭐라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와 배경 화면이 틈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제가 그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상의 꿈을 가슴에 품는 것 같았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느끼며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원 공연의 예술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며 무용수들의 뛰어난 기량에 찬사를 보냈다. “누가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감히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은 공연을 봤지만 선원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제 70년 인생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런 공연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꼭 봐야 합니다.”

스위스 전문 소프라노 가수인 드레뤼스(Eli Schewa Dreyfus)는 “선원은 완벽함, 영혼, 신성의 결합이며 이 지구상에서 평화를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창조주께서 세상에 내려와 사람을 구하는 프로그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류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신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연의 매 순간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원은 세상에 신의 은혜를 보여주는 용기를 가졌고 저를 매우 감동하게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정말, 정말 용감합니다”라고 말했다.

2월 16일, 영국 란디드노(Llandudno)시의 앤서니 베르톨라(Antony Bertola) 시장 의원(Mayor Councillor)이 선원 영국 공연 주최 측에 표창 서한을 보내, 선원예술단이 지역사회와 영국 사회 전반에 기여한 탁월한 문화적 공헌에 감사를 표했다. 란디드노는 선원이 올해 영국에서 순회공연하는 12개 도시 중 하나다. 세 차례 공연의 티켓은 사전에 모두 매진됐으며, 현장 반응 또한 뜨거웠다. 시장으로서 공연의 성황을 직접 목격한 베르톨라 시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든 분께 선원 관람을 권하고 싶습니다. 누

구나 저마다 다른 감동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은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어 반드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지(天地), 운명, 그리고 인간과 신(神)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감정적으로 공명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공연은 역사적 연원, 학문적 깊이, 교육적 의미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매우 훌륭한 효과를 자아냅니다.”

2월 18일, 영국 스톡온트렌트시 시장 스티브 왓킨스가 부인과 함께 리젠트 극장(Regent Theatre)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이 끝난 후 왓킨스 시장은 스톡온트렌트시 문화생활에 기여한 뛰어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선원예술단에 시장 특별 표창장을 수여했다. 왓킨스 시장은 시상식에서 밝혔다. “저는 이 공연을 위해 바친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고무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극장에서 이토록 화려한 색채에 활력이 넘치고 야심 찬 프로그램을 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계속 나아가며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를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또한 공연 중 전통 민간 전설과 기원 신앙에 뿌리를 둔 정신적 내포가 ‘매혹적’이라고 감탄했다. 공연이 보여준 정신적, 도덕적 주제도 시장의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이것이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다.

1월 7일 오후, 옥스퍼드(Oxford) 시장 루이스 업턴(Louise Upton) 박사는 옥스퍼드 뉴 시어터(New Theatre)에서 열린 현지 첫 선원 공연을 관람했다. 역사 문화 명소의 시장으로서 그녀는 선원이 즐겁고 고상한 관람 경험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성찰을 하게 하는 가치관을 전달해 여운이 길게 남는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와 내무부가 얼마 전 중공(중국공산당) 스파이의 선원예술단 영국 순회공연 협박 사건을 규탄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의원 페리얼 클라크(Feryal Clark), 국회의원 마크 프리처드(Mark Pritchard) 등이 잇따라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영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선원에 대한 협박 행위는 영국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영국 영토 내에서 공연 관계자, 공연 장소 또는 관객을 협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원예술단은 올해 3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해 현지 시민들에게 5회의 정상급 예술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공은 덴마크 선원 공연을 파괴하려 시도했고, 심지어 주최 측에 덴마크 총리와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협박 편지까지 보냈다. 이에 대해 덴마크의 여러 정계 인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월 17일, 덴마크 자유연합당의 사회문화 대변인 카트린 도가드(Katrine Dugaard)는 중공의 악의적인 성명을 접한 후, 본인이 지난해 오덴세에서 선원 공연을 직접 관람했는데 매우 훌륭했으며 결코 중공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가드 대변인은 덴마크가 자유를 숭상하는 국가이기에 중공의 성명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강조했다. “덴마크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예술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국회 시민권위원회 의장 미켈 비외른(Mikkel Bjørn) 역시 덴마크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공을 규탄했다. “저는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에 대해 중공 독재 정권이 늘어놓는 언사나 생각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덴마크 국회 상무위원회 의장 킴 발렌틴(Kim Valentin)은 이렇게 말했다. “덴마크에서

국가는 시민이 무엇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가 없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어 지적했다. “따라서 중공 대사관이 덴마크인들에게 영향을 주려 하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일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선원 공연을 보러 가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월 16일, 덴마크와 인근 국가의 일부 파룬궁수련자가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덴마크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중공 대사관이 덴마크 사회에 증오 발언을 유포하고, 파룬궁 단체와 선원예술단을 먹칠하고 위협하며, 선원 공연을 관람하려는 동서양 관객을 위협하고 회유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선원 공연 관람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항의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덴마크 각계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중공이 마수를 덴마크 민주 체제 내로 뺏쳐 자행하는 초국가적 탄압과 박해 범죄를 함께 제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중공의 유언비어와 모욕이 그들의 한결같은 기도(企圖)와 마찬가지로 역효과를 낳아, 반드시 또한 번 선원을 위한 무료 광고가 돼 더 많은 덴마크 시민이 선원의 방문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시민이 와서 선원을 이해하고 선원의 완벽한 공연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1일, 아일랜드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만난 네덜란드 관광객 아이린(Irene)이 한 말이다. 동행한 로언(Rowan) 역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선인 원칙이 “정말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날 비바람이 끊이지 않았지만, 파룬궁수련자들은 변함없이 더블린 시내 중심가에 나와 진상을 알렸다. 이들은 병오년 말띠 해를 맞아 대법의

아름다움을 현지 시민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전하며 새해 축복을 보냈다. 많은 시민은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 반대 청원서에 서명한 후 단체 연공 장면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말했다. 아이린은 수련자에게 네덜란드의 두 도시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만난 적이 있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박해를 점차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런 박해가 발생하다니, 게다가 이렇게 (잔혹한)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린은 말했다.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만행은 더욱 아이린을 놀라게 했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다. 그녀는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직언했다.

토론토 퍼시픽몰(Pacific Mall)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시에 위치한 아시아 쇼핑센터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매서운 눈보라와 퇴약별 속에서도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왔으며 매일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삼퇴를 했다. 황(黃) 수련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고 당당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삼퇴하고 평안을 지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베이징에서 온 한 부부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건넨 전단지들을 받았다. 중공의 당·단·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묻자 아내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처럼 중공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가입 안 했을 리가 있나요?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중공 중앙 체제 내의 고위 관리였고 아내는 관영 매체 기자였다. 그들은 삼퇴의 의미와 대법의 진상을 진지하게 듣고는 부부 모두 시원스럽게 탈퇴했다. 남편은 말했다. “중공의 부패와 그들이 저지른 나쁜 짓은 여러분이 아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체제 안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은퇴하고 밖으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인도 콜카타(Kolkata) 파룬궁수련자들이 제49회 콜카타 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중학교 교장 아비셰크 로이(Abhishek Roy)는 부스를 찾아 수련자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인도 학교에서 파룬따파를 가르치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시험 성적을 향상시키며 무단결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로이는 파룬따파의 원칙에 공감을 표했다. “학생들이 진선인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이 일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법륜’과 ‘파룬궁’을 구매하며 학생들과 함께 배우겠다고 했고,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공법을 가르쳐달라고 수련자들에게 요청했다. 도서전 기간 총 100여 명이 파룬따파 온라인 강좌를 신청했다. 도서전 후 첫 일요일, 약 70명이 온라인 홍법(弘法) 공법 교육 강좌에 참여했다.

2월 16일, 미국의 소리(VOA)는 영문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 수석 편집자이자 ‘미국의 사상 리더(American Thought Leaders)’ 프로그램 진행자인 얀 예키엘렉(Jan Jekielek)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는 미국의 소리가 중공 생체 장기적출 주제에 대해 진행한 최초의 심층 TV 인터뷰다.

2월 21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미 국무부는 ‘Freedom.gov’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터넷 우회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이란 등 국가의 인터넷 검열을 우회해 중국과 이란 및 전 세계의 엄격한 인터넷 감시를 받는 국가의 시민들이 검열 없는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며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하얼빈시 난강구 왕강진에 거주하는 57세 파룬궁수련자 텐위화(田玉華)는 2025년 10월 25일 정오, 난강 공안분국 경찰이 집에 침입해 납치하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하얼빈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누명을 썼으며, 2026년 2월 10일 다오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이어 징역 5년과 벌금 5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법을 어기고 함정에 빠뜨린 검사는 후디(胡迪), 판사는 원창푸(文昌福)다.

헤이룽장성 다칭시 파룬궁수련자 평원취안(馮雲娟)이 2025년 4월 16일, 가족을 미행해 집으로 들이닥친 사복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감금 및 모함을 당했고,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녀는 현재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돼 있다. 법원은 재판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최종 판결 역시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접견을 가서야 판결문이 이미 나온 사실을 알게 됐다.

랴오닝성 다롄시 파룬궁수련자 팡차이샤(方彩霞)가 2025년 6월 23일, 다롄시 공안국 중산분국 칭니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다롄 야오자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6년 1월 8일, 팡차이샤는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 제3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6년 2월 12일, 팡차이샤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는 팡차이샤가 두 번째로 불법적인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현재 항소 중이다. 팡차이샤는 현재 58세로, 여러 차례 납치와 감금을 당했다. 이전에 그

녀는 두 차례 불법 강제노동, 한 차례 불법 형 선고를 받아 9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윈난성 추승시 파룬궁수련자 류이쥘(劉宜君)은 2020년 11월, 집에서 10년 넘게 마비로 누워 지내는 어머니를 돌보던 중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이 “문병 왔다”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납치당했다. 이후 불법 가택수색과 함께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집안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사정을 여러 차례 호소해 강제 ‘감시 거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25년 7월 중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채 한 달도 안 돼 경찰은 ‘수감’을 명분으로 류이쥘을 다시 납치해 윈난성 제2여자감옥으로 압송했다.

지린시 창이구 파룬궁수련자 장용친(姜永芹)은 전 저장 이공대학 교사였다. 2022년 6월 12일 지린시 룡탄구 신안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지린성 공안청 특훈실 요원들에게 고문과 자백 강요, 추행 등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2024년 1월 24일 창이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지린성 여자감옥에서 심각한 학대를 당해 다리가 골절되고 폐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신체가 극도로 허약해져 피골이 상접하고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2026년 1월 25일 새벽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57세.

내몽골 자치구 후룬베이얼시 야커스시 파룬궁수련자 팡다오허(方道和)가 2016년 10월 납치돼 불법적으로 9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10일 바오안자오 감옥으로 이송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22년 9월 말, 10월 초에 감옥에서 박해받아 사망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배포하는 자료를 못 봤어요”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진상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수련자는 이유가 단 하나지만, 진상 알리기를 원치 않는 수련자는 이유가 백 가지일 수도 있다.

1. 이런 수련자가 있다

최근 한 수련자가 이웃에 사는 수련자 이야기를 했다. 이 수련자는 약 20년간 꾸준히 진상 자료를 배포해 왔다. 거의 중단한 적이 없고 매주 꾸준히 나가서 하니 정말 대단해서 나에게 큰 감동을 줬다. 왜냐하면, 이 수련자는 시간이 보통 아주 빠듯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는 배관 설비와 벽 철거 일을 했는데, 때로는 밤낮없이 바빴다.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아내가 이리저리 부려먹어 쉴 틈이 없었지만, 그는 일하는 틈틈이 자료를 배포했다. 매번 소량씩, 일주일에 몇 번은 배포할 수 있었다.

요 몇 년간은 직장에 다니며 시간 규칙이 안정됐지만 휴식 시간은 여전히 극히 적다. 매일 아침 5시에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식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뒤 출근하는데, 직장 환경이 제한적이라 진상을 많이 알리지 못한다. 점심시간에는 법공부를 하고, 저녁 5시경 퇴근하면 집에 가서 밥을 짓고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온다. 밥을 먹고 다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는데, 때로는 학원에서 아이를 데려와 집에 도착하면 거의 자정이 다 된다. 집안일 대부분은 수련자가 하고 아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으며, 퇴근 후 때로는 직장에 일이 생기면 또 그를 부른다. 다년간 그는 거의 매일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매일 저녁 연공 시간도 보장하기 어려워 때로는 낮에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

귀한 것은 다년간 그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원에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틈이나 출퇴근 도중을 이용했다. 이렇게 매주 반복하며 일 년 내내 꾸준히 거의 중단 없이 해왔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매주 40부 정도 배포할 수 있었다.

이런 끈기가 소중한 이유는 그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고, 여우 겨드랑이 밑의 흰 털을 모아 옷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정법(正法)의 사람 구하는 사명은 무심코 하는 사이에 거의 완성돼 가고 있으며, 천지간의 이 가장 신성한 일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지는 듯하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한다. 최선을 다해 진상을 알리는 수련자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서약을 실현하고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반면 진상을 알리고 싶지 않은 수련자는 이유가 백 가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모두 서약을 어기는 것이다.

사부님께서서는 ‘각지 설법14-2016년 뉴욕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올 때 일찍이 나와 서약을 맺었고, 당신이 그런 중생을 구도하겠다고 맹세했기에 당신은 비로소 대법제자가 될 수 있었으며, 당신은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이행하지 않았다. 당신이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당신이 담당한 당신에게 분배해 준 배후의 그러한 무량한 중생과 방대한 생명군(生命群)을 당신은 모두 구도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간단하고도 간단하게 수련에 정진하지 못하는 문제인가? 그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큰 범죄이다! 비할 바 없이 큰 죄이다! 당신이 그때 가서 사부를 불러 “사부님 제가 수련을 잘하

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일이 곧 끝인가?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런 구세력이 당신을 가만두겠는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또 수련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 어느 시골에 몇몇 수련자가 있다. 그들은 시간을 다그쳐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낮에는 장터나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구하고, 낮에 미처 하지 못한 발일은 밤에 밭에 가서 한다. 이렇게 사람 구하는 일과 집안 농사일 모두 지체하지 않았으니 정말 대단하다.

진정으로 사람 구하는 길을 걷고 있는 대법제자에게 사람 구하는 일을 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누가 앉아서 법정인간을 기다리는가

몇 년 전 한 수련자가 꿈에서 사부님을 뵈었는데, 사부님께서 비할 데 없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좀 할 수 없느냐?” 그녀는 사부님의 말투가 매우 자비로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꿈에서 깬 후 그녀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사람 구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가 이미 10여 년 지속됐다.

교류 중 그녀의 생각은 이러했다. 자신은 이전에 걸어 나왔다가 박해를 받았기에 다시는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싶지 않으며, 사부님은 자비로우시니 제자가 장차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사람 구하는 일을 하도록 안배해주실 거라는 것이다. 그녀와 계속 교류하고 싶어도 그녀는 듣지 않았다.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사명이며 게다가 사부님께서도 줄곧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사부님께서도 2006년 맨해튼 설법에서 “진상을 알리는 이 일은

역량이 갈수록 커져야만 하며, 느슨히 할 수 없는데, 절대 느슨히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많은 수련자가 앞서서 법정인간(法正人間)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만, 진상 알리는 일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가? 지금 수련자들도 모두 배포하는 자료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때로는 일반인들이 “오랫동안 여러분이 배포하는 진상 자료를 못 봤어요. 당신네 사람들은 이제 안 하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많은 세상 사람이 비록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표명했지만, 아마 입으로만 탈퇴한다고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진상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때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깊이 있게 진상을 분명히 알려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사부님께서서는 ‘각지 설법 14-2016년 뉴욕법회 설법’에서 언급하셨다. “중공사당을 폭로하는 이것은 이후에도 한동안 해야 할 일이며, 또 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종결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형태 중에서 사람을 아주 깊이 해쳤는데,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부님께서서는 또 말씀하셨다. “다음 일보는 또 법이 인간세상을 바로잡는(法正人間) 일이 있다. 어제 한 수련생이 기타 일부 법을 얻지 못한 사람의 문제에 관해 질문했는데, 그것은 장래 법정인간(法正人間)의 일이라고 나는 말했다. 대법제자로서 말하자면 단지 정법시기에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이 시기의 대법제자는 바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각지 설법 14-2016년 뉴욕법회 설법)

어떤 수련자는 잠재의식 속에서 관망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사람 마음으로 법정인간 시기가 되면 어떡어떡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어떤 수련자는 꿈이나 천목(天目)으로 사부님께서 표정이 슬프시고 조급해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만약 법정인간 때 대법제자가 사람을 구하고 수련하는 데 있어서의 손실을 쉽게 보충할 수 있다면, 사부님께서 굳이 조급해하며 눈물 흘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약 반년 전에 펜을 들어 쓴 글인데 당시에는 수정하지 못하고 바빠서 잊고 있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어느새 또 연말이 됐는데, 오늘 문득 이 일이 생각나 글로 정리했다. 부족한 점은 수련자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허스(合十)!

선원 홍보 중의 의구심과 사고(思考)

글/ 쯔웨이(子威)

[명혜망] 나는 각지의 선원 홍보 상황에 매우 관심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열기가 뜨겁고 심지어 내년 티켓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다. 하지만 아태 지역의 일부 도시가 다시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 수련자를 대거 동원해 거리에서 홍보 자료를 배포하거나 대규모로 가판대를 설치해 티켓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사부님 설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사부님께서 ‘2009년 대뉴욕국제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사회의 상위 층 사람에게 당신이 하위 층의 일들에 참여하라고 해도,

그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체면을 차리고 과시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모두 상위 층 사회로 비집고 들어가려 한다.”

사부님께서 ‘각지 설법 10-더 정진하자’에서 말씀하셨다. “한 가지를 당신들이 알아야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한 이 일은 당신들이 되고 안 되고를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했으면, 당신들은 오로지 가서 하기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일단 무엇을 결정했다면, 간단한 한 마디가 아니며, 절대로 간단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것을 변동시켜야 하는데, 신(神)이 모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정법 중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는데, 당신의 마음속에서 넘기지 못하고, 당신은 늘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기만 하면 엉망이 되며, 조금만 움직여도 엉망이 된다. 당신은 사부가 어떻게 하라면 당신은 곧 어떻게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제자들 웃음) 어찌 사부가 어떻게 하는데 대해서도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안 된다면 사부가 책임진다! 되고 안 되고는 해 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이 몸은 서방사회에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이 사회를 알지 못한다. 바로 당문화(黨文化) 중에서 형성된 관념을 전면시켜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류의 정상적인 생활 상태를 많이 알아야 하며, 늘 사람의 마음으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정말로 사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라도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역시 안 되는 즉, 사부가 당신에게 주류사회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주류사회가 아닌 곳에 가서 한다면, 당연히 성사될 수 없으며, 당신은 당연히 또한 진정으로 협력한 것이 아니다. 사부가 주류사회를 하라고 했으면, 그럼 당신들은 정념으로 주류사회에서 하라.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사부님께서 ‘각지 설법 12-2013년 대뉴욕지역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어떤 지역에서는 단지 그 세 명, 네 명이 여러 회의 쇼

를 했고, 게다가 만석을 이루었는데, 이 위덕이 얼마나 큰지 당신이 보라. 그러므로 장래에는 갈수록 사람을 적게 쓸 것이다. 또한, 지금 통계를 냈는데, 각지에 모두 이런 상황이고, 80퍼센트 이상의 관객이 모두 광고를 보고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일손으로 광고를 잘하기만 하면 된다. 점차 이렇게 할 것이다.”

현재 선원 공연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됐는데, 왜 일부 도시는 아직도 홍보 초기 단계의 방식으로 홍보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적은 인원을 사용해 주류사회를 공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법에 대한 바른 믿음[正信]이 부족해 주류 홍보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며, 다시 전체 수련자를 동원해 수준 낮은 비주류적 홍보 방식을 병행했다. 내가 알기로 한 국가는 줄곧 이렇게 해왔으며 줄곧 선원을 잘해내지 못했다.

이런 현실이 있다. 현재 해외의 많은 수련자는 박해 이후에 나온 경우가 많아서 주류사회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다. 이런 배경의 단체를 동원해 사회에서 수준 낮은 방식으로 고급 공연을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며 선원의 브랜드와 광고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광고 효과가 떨어지면 이어서 광고비를 추가하게 돼 비용이 급증하고, 수련자들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주게 된다. 선원 홍보는 광고 위주여야 하며, 주류사회를 잘 아는 소수의 수련자가 목표 관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는 수련자는 정념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상이 개인적인 인식이며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허스(辱十).

갈등 속에서 교란 작용을 일으키지 말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대법 수련자라고 자칭하는 해외 인원들이 RTC 내부 당사자의 녹음 발언을 대량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까지 전달하고 있다.

항목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든 모두 수련이다. 당사자와 교류하고 소통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문제를 찾아야 한다. 녹음을 내보내는 것은 원망심과 업력을 유포하는 것이고, 스스로 착실히 수련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교란하는 것이다. 특히 RTC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중국에까지 보내는 것은 더욱 이성적이지 못하다.

중국 수련자들이 만약 이러한 발언을 받게 된다면 전달하지 말고, 확산하지 말며, 보관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명혜망의 교류 문장을 전달하는 것은 확실히 공유하는 것이지만, 갈등에 처한 한쪽의 격렬한 발언을 도처에 전달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법공부가 깊지 않은 수련자나 신수련자가 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일반인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를 확산하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파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적인 이해로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다. 일의 옳고 그름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내부의 갈등을 확대하고 수련자들 사이에 대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사악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갈등 속의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무리를 끌어모으고 도처에 전달하며 자기 말만 하고 있는데, 대법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았는가? 이전에 반대편으로 나아갔던 사람 중 적지 않은 이들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가?

집안싸움이 나면 보통 사람도 싸움을 말릴 줄 아는데 어떤 이들은 세상이 어지럽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듯하다. 내부 녹음을 도처에 전달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가장 가련하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러한 갈등에 대해 각자의 견해가 있고 교류하고 싶다면 명혜망에 글을 써서 교류할 수 있다. 하지만 제발 이러한 녹음을 전달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지 말며, 무지한 가운데 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최근 RTC 플랫폼 풍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글/ 대만 대법제자

[명혜망] 내가 있는 지역의 전임 구(區) 보도원은 내게 여러 차례 “당신은 RTC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기에 수련이 빠르게 제고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사실이며 그렇기에 나는 이 플랫폼에 깊이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다.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구체적인 일에서 일부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괜찮지만, 또한 자신이 제출한 의견이 전체와 조화로운지도 보아야 한다. 책임자로서 말한다면

그 역시 어려움이 있는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이상 또한 그 각도에 서서 문제를 보지 못한다. 많은 수련생은 모두 학교를 나온 후 무슨 책임지는 일을 한 적이 없고 경험이 없는데, 항목을 책임지는 것 역시 그들에 대한 고행이다. 그 외에 일부 수련생들이 나에게 보낸 편지를 나도 다 보았다. 비록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반영했으나 행간마다 사실 모두 자기 수련 중의 부족함을 나타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매우 집착하는데,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나에게 말했으며 마음속의 불평을 토로하였다. 책임자라면 반드시 합리적인 건의를 들어야 하며, 책임자가 아닌 사람들도 반드시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협력해서 해야 한다.”(로스앤젤레스시법회 설법)

여러 국가에서 온 수많은 수련생을 조율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협조를 맡은 수련생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율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고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다. 나 역시 과거 직장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일해봤기에 다방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려움을 어떻게 배제하고 통합하며 돌파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 앞에서, 하물며 사람을 구하는 일에 수반되는 초범적인 난이도까지 더해졌으니 역시 직면하여 일을 잘해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태를 보며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고자 하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2020년 초 RTC 교육에 참가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당직을 서며 전화를 걸고 사회를 맡아왔다. 2021년 10월에는 부조장 업무를 맡아 매주 정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때 우리 플랫폼에 많은 교란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당시 나는 신수련생이었기에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개인적인 인식으로는 수련인이 어떻

게 속인과 똑같이 시끌벅적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 수련에는 영향이 없었고 그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며 이상하게 여겼을 뿐이다. 이후 RTC 플랫폼 협조인이 교체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입은 타격은 너무나 컸고, 사람을 구하는 강도와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평소 오전과 오후에만 당직을 서며 전화를 걸고 저녁 팀 활동은 하지 않지만, 한 팀의 교류 사회를 맡은 탓에 수시로 플랫폼에 접속해 수련생들의 교류를 들곤 했다. 어느 날 저녁, 플랫폼 교류에서 격렬한 비판이 오갔는데, 나중에는 집필팀의 삼퇴(중공의 3대 조직 탈퇴) 권유 소재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고 급기야 풍파가 불거졌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현재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나는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법 노정이 이미 ‘마지막 중의 마지막’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 ‘대법수련은 엄숙한 것이다’라는 경문에서 ‘도태’와 관련된 법을 설하셨는데, 이는 곧 거대한 시험이며 오직 진정으로 수련하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사단을 일으켰던 이들이 수년이 지나 다시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것을 폭로해 대법제자 각자가 자신을 반성하고 수련 상태를 점검하며, 자신이 진정한 수련제자인지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은 사람 마음(人心)에 미혹되어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고, 법에 있지 않은 사람이 휩쓸려 사오(邪悟)하고 빛나가게 된 것은 아닌가.

수련인은 닦을 수 있는 만큼 높이 닦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을 대립면에 세우고 입으로는 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쟁투심, 과시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타인을 부정하는 마음

등을 드러낸다면 이는 수련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수련생들이 삼퇴를 권유할 때 부족함이나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자비롭게 탐구하고 바로잡아야 하며,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마땅히 집필팀 협조인을 찾아가 건의해야 한다.

속인사회에서도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데, 수련인이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자신의 삼퇴 원고가 얼마나 훌륭하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주장할지라도, 수련인의 각도에서 보면 사실 대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이며 선(善)과 인(忍)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필팀 또한 금구(金句)와 전통문화를 활용해 진상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했고, 이후 관련 교류회도 열었으며, 수련생들은 이것이 일부 청취자들에게 효과적임을 검증했다.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길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각자 신통력을 발휘해 잘해내면 되는 것이지, 어찌 남을 부정하며 오직 자기 것만이 옳고 최고라고 떠벌릴 수 있겠는가.

그들이 별도의 단체방을 개설한 일에 대해 말하자면, 속인의 회사나 기관, 조직에도 자체적인 관리 규범이 있고 구성원이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 수련은 대도무형(大道無形)으로 어떠한 조직도 없지만, 정법 시기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법제자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춰 다양한 진상 알리기 항목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수련생이 많으므로 당연히 정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모두가 협조하여 사람 구하는 일을 잘해내야 한다. 그렇다면 특정 항목에 참여할 경우 해당 항목의 운영 방식을 따라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떠나면 된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더구나 자신만이 최고라고 여기며 항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위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법을 수호하는 것인가? “『봉신연의(封神演義)』 중의 신공표(申公豹)가 강자아(姜子牙)를 보니, 늙고 또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원시천존(元始天尊)은 강자아에게 봉신(封神)하게 했다. 신공표의 마음속은 곧 평형을 이루지 못했다. ‘어째서 그에게 봉신하게 하는가? 당신은 나 신공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내 머리는 베어도 다시 돌아와 붙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봉신하게 하지 않는가?’”(전법륜) 재주 좀 부리던 신공표가 왜 봉신되지 못했는가? 남을 얕보는 마음,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 불복하는 마음, 질투심 등 심성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조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다. 우리 플랫폼의 한 수련생은 과거 대만 인터넷팀에서 교육 담당자로 활동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난 후 그녀는 별도의 단체방을 만들지도 않았고,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년간의 경험을 공유했을 뿐이다. 또한 교육 담당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여전히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성과도 훌륭하다. 설령 플랫폼에서 삼퇴 권유 표현 내용과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을 때도, 그녀는 매번 심성 관(關)을 넘으며 제고했다. 반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수련생은 줄곧 교육 담당자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선전했다. 내가 알기로 그녀가 주관한 정식 교육은 고작 두 기수뿐이었는데, 이후 무리를 지어 단체방을 개설하고 심지어 플랫폼에 찾아와 직접 소란을 피우며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다.

사부님께서서는 『정진요지』 ‘불성(佛性)과 마성(魔性)’에서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이치를 말씀하셨다. 정(正)이 있으면 사(邪)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똑똑히 파악해 사람 마음을 일으

키지 말고,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화뇌동하여 깃발을 흔들며 고함치지 말아야 하며, 영향을 받은 수련생은 조속히 자신을 바로잡고 돌아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우리 플랫폼에는 자신의 수련에 책임지고 상태를 훌륭하게 유지하는 수련생이 많다. 이 기간 수련생들의 교류를 듣고 있노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으로 찾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등 진정한 비학비수(比學比修)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논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일을 통해 수련인은 절대로 밖을 향해 보지 말아야 함을 깊이 깨닫고, 필요 시 합리적인 건의를 하되 자비로운 마음으로 플랫폼을 원용해야 한다. 자신을 잘 닦고 전체와 협력해 더 많은 사람을 구함으로써 사명을 완수하는 진정한 대법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 수련생들에게 ‘원클릭 봉쇄 우회’ 항목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함

글/ 해외 거주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중국 국내의 한 네티즌이 내게 ‘X더우왕(X豆網)’이라는 이름의 QR코드를 보내왔다. 이는 현재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수련자 대부분이 강력히 추천하는 ‘원클릭 봉쇄 우회(一鍵翻牆)’ 프로젝트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들어본 지 오래됐지만 관련 QR코드를 직접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드를 스캔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깊은 우려를 느꼈다. 오랫동안 망설임 끝에 책임감을 갖고 내 인식을 이야

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심각한 안전 문제이고, 둘째는 법을 스승으로 모시는 대법제자가 무엇을 전파해야 하고 전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1. 웹사이트의 문답 내용을 보면 참여하는 중국 수련자가 적지 않으며, 그중 다수가 노년 수련자다. 이 중국 수련자들은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른다. 만약 중국 수련자들이 이런 웹사이트에 대거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2. 웹사이트는 자체 유료 VPN을 추천하고, 특정(중공이 ‘민감’하게 여기는) 앱 다운로드를 권장한다. 이는 중국 수련자에게 다운로드 및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설치된 VPN 등의 앱은 패키지 이름 등을 통해 쉽게 식별될 수 있어, 사용자가 관련 VPN 서비스를 쓰고 있음이 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백도어가 없어도 가능하며, 하물며 불량 소프트웨어와 백도어가 내장된 국산(중국산) 휴대폰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갈수록 험악해지는 중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이는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3. 1인 미디어 수련자들이 이 항목을 홍보하는 주요 목적은 기부금 모집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관련 QR코드를 공개적으로 배포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내가 파악한 초기 상황은 그러했다. 이유는 공개 배포 시 빨리 차단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배포 방식은 두 가지다.

- 하나는 해외 수련자가 소셜 그룹을 만들어 해외에서 그룹 내로 투입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중국 수련자가 배포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 수련자가 배포에 참여하고 있다면 절대로 인터넷에서 배포하지 말 것을 권한다. 이는 자신에게 심각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4.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후원금 접수나 구매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알리페이 방식(예: 기프트카드 구매)이고,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암호화폐인데, 모두에게 OKX를 다운로드해 암호화폐로 결제 및 구매할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

우선, 개인적으로 중국 수련자들이 알리페이를 사용해 이런 기부나 구매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주지하다시피 알리페이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모바일 결제 및 금융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으로 2004년에 설립됐다. 초기 목표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타오바오와 티몰)의 안전 결제를 촉진하는 것이었으나, 곧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슈퍼 앱이자 세계 최대 전자지갑 중 하나로 발전했다.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보호하는 ‘중간자’로 시작해 현재는 포괄적인 금융 및 소비자 서비스 생태계가 됐다.

알리페이는 처음에 국영기업이 아니었으나 이미 오래전에 중공의 국가 관리에 귀속됐다고 선포했다. 2018년 5월 11일, 알리페이가 정식으로 국가 인터넷망(‘온라인판 유니온페이’)에 접속됨에 따라 중공은 알리페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사용자의 모든 온라인 이체는 중공의 감시하에 있다.

그다음으로, 내 개인적인 인식으로는 대법제자의 항목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명혜망 통지 ‘디지털 화폐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대법제자가 참여하는 것은 모두 난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OKX(중국어명 ‘어우이’, 옛 명칭 OKEx)라는 회사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중공 감독 부문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법 집행 부문은 이 회사에 대한 관할권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의 해외 발전을 묵인해 왔다. 현재 2017년에 설립된 이 디지털 자산 기업은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몰타, 두바이, 호주 등지에 지사를 운영하며, 두바이 VASP 라이선스, 호주 AFS 라이선스 등에 대한 감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5. 이 웹사이트가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내용 중에는 일반인의 프로그램(콘텐츠)도 포함돼 있으므로, 우리 중국 수련자들이 이를 홍보하지는 말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일반인의 채널들은 웹사이트에서 모두 간징월드(Gan Jing World)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수 채널 운영자가 일반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희망의 소리(SOH)에서 공개 보도했던 ‘사기범’(이 보도는 지금까지 남아 있음)이기도 하며, 많은 이들이 강렬한 반(反)트럼프 성향을 띠고 있다.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부류 사람들은 대법에 대한 태도도 매우 모호하다. 어떤 수련자는 모 인사가 과거 대법에 반대하는 언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가 매우 방대해 시간을 들여 검색 및 확인해 봤으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해당 발언을 찾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인 미디어 수련자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들 스스로 통제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그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두면 된다. 하지만 우리 수련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반인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가 현재 정말로 대법에 반대하지 않는지 불확실하다면, 수련인으로서 경솔하게 그들의 언론 전파를 돕는 것은 수련상 거대한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6. 설령 해외 수련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홍보 어조를 약간 함축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해당 웹사이트의 방화벽 우회 방법은 명백히 역방향 프록시(Reverse Proxy) 기술을 채용한 것인데,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응용돼 온 일반적인 기술이다. 내가 알기로 우리 수련자 중 크고 작은 많은 항목팀이 이 기술을 응용해 중국 네티즌들에게 방화벽 우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도 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관련 항목 운영자들은 이를 인위적으로 너무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를 ‘실리콘밸리 화인(華人) 기술 엘리트’가 내놓은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첨단 기술’이라 칭하거나, 대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고, 네티즌이 ‘전용 링크’를 원할 경우 ‘200달러’를 내고 링크 하나를 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조금 아는 수련자로서 나는 우리 1인 미디어 수련자들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그들의 팬층에는 일정 수준의 기술적 기초를 갖춘 네티즌이 대단히 많으며, 그중 중국에서 온 네티즌들은 기본적으로 관련 기술을 통해 방화벽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런 언론은 그들에게 있어 가볍게 말하자면 매우 진실하지 못한 홍보가 아니겠는가?

비교해 보자면 최고의 상업용 VPN조차 3년에 50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모든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제공하는 200달러짜리 링크 하나로는 오직 웹사이트 하나만 볼 수 있다! 이처럼 큰 격차는 이 집단이 이러한 홍보에 대해 내심 어떤 평

가를 내리게 하겠는가?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이들 1인 미디어 수련자들은 소셜 플랫폼에서 이미 일반인들에게 ‘파룬궁’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일에서 취하는 홍보 어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앞서 언급한 네티즌이 그 QR코드를 보내온 다음 날, 이 코드가 중국 내에서는 이미 열리지 않는다고 다시 알려왔다. 이는 나중의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 나는 아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고 오늘에야 내 견해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안전과 수련의 엄숙함에 대해 수련자들과 교류하고자 함이며, 결코 결례를 범하려는 의도는 없다. 만약 내 관점이 적절하지 않다면 여러 수련자분들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사람 마음으로 대법과 사부님을 수호하지 말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대법제자로서 대법과 사부님을 수호하는 것은 본연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호는 반드시 일반 속인의 인식을 초월해야 하며, 속인의 증차에서 이해하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속인이 편을 들거나 제 식구를 감싸는 격이 되고 만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고비를 넘기는 중에 어떤 가상(假相)에 미혹돼, 진상을 명확히 알리기는커녕 자신마저 미혹에 빠질 수 있다.

수련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모든 것은 법을 위해 왔다

사부님께서서는 법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수련 중에 일어나는 모

든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우리의 집착을 겨냥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그저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데 그쳐 입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막상 일을 당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대법이 비방과 유언비어에 시달리기 시작했을 때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드셨다. “대마두(大魔頭)와 중공(中共)이 수련생에게, 너희들의 선생은 어떠어떠하게 돈이 있으며, 북경과 장춘에서 어떠어떠한 호화로운 주택에서 살았으며 생활이 어떻게 사치스러웠다고 날조하였다. 그때 중국에서 법을 전할 때 내 생활은 아주 단출했다. 중국의 한 수련생이 말하기를, 우리 사부님은 가장 좋으시며,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우리 사부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당시 마음이 아주 괴로웠으며, 나는 과거에 하세(下世)하여 사람을 구도한 신(神)의 당시 고달픔을 더욱 헤아릴 수가 있었다. 수련은 자신을 닦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한단 말인가?”(각지 설법7-미국서부국제법회 설법)

속인의 기준으로 가늠한다면 이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 현대인의 관념은 마치 더 청빈할수록 더 정파(正派)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련인의 각도에서 본다면 그것은 차이가 너무나 크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련을 가르친다고 하여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수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각지 설법7-미국서부국제법회 설법)

우리는 제공(濟公)의 예를 들 수 있다. 제공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을 때, 속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진심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제공에게는 모두가 익히 아는 명언이 있다. “술과 고기는 창자를 지나가나, 부처님은 마음속에 머무신다.” 그러나 많은 이가 그 뒤의 문장인 “세상 사람들이 만약 나를 배운다면, 마도(魔道)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은 간과한다. 사부님의 법은 매우 명확하다.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사부님만이 수련 중에 계시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과 심지어 많은 수련생조차 일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속인의 잣대로 사부님을 가늠하며, 속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사부님을 정의하려 하지 않는가?

때때로 나는 사부님께서 정말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한다! 속인 속에서 법을 전하시기에 세인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모든 중생을 구하셔야 하므로, 만약 지나치게 ‘속인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대다수 세인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심지어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제자 집단 내에서 생기는 집착을 구세력이 또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으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사부님께서서는 반드시 ‘장계취계(將計就計, 상대의 계략을 역이용함)’로 이러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많은 연극을 하셔야만 한다. 이러한 소재들이 ‘빌미’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사오(邪悟)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며, 이를 통해 집착이 있는 제자들을 찾아내려 하는 것이다.

법난(法難) 중의 가상에 미혹

주지하다시피 해외 인터넷상에서 몇몇 전직 대법 매체 인원과 전직 선원 단원들이 일부 서구 매체 플랫폼과 결합하여 대법을 훼손하고 여론을 오도함으로써, 국내외 진상 알리기에 어려움을 더하고 일부 수련인들에게 시험을 주고 있다. 사실 세인들은 원래부터 대

법과 수련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쩌면 일부 수련생은 여전히 어떤 속인이나 속인 조직이 사악을 소멸하고 대법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가소로운 것이며 완전히 법에 있지 않다.

사부님을 제외한 모든 세인, 즉 모든 대법제자, 각계의 영매(靈媒), 각 문파의 대사(大師) 등을 포함한 모두가 일정 정도 미혹 속에 있다. 그 누구도 사부님께서 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대법제자를 초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헛수련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람, 우리의 가족과 친구 등을 포함하여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해한다면 그들은 우리 대법제자와 같아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련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들의 소위 이해라는 것은 사실 매우 한정적이고 심지어 가련할 정도로 적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류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수련 문화에 대한 아주 미미한 정보적 동의일 뿐이다. 하지만 이 미미한 정보적 동의만으로는 오늘날 진정한 수련인들이 직면한 대시험의 미혹 속에서 대법을 이해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이 아마도 일부 유명 서구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대법을 공격하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내 생각에는 단순히 사당(邪黨)의 자금 수급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빌미’가 없다면 사악도 풍파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개된 정보로 볼 때 이번 대시험 중에 많은 수련생, 심지어 일부 ‘덕망 높은’ 수련생들조차 중대하고 관건적인 일에서 정말로 법에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수련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자신을 닦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닦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련 중의 이러한 심각한 공격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자신을 대조해 보아야 하며, 더욱 법에서 명석한 인식을 가져야만 환상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덕망 높음’, ‘명성’ 이런 것들은 모두 속인의 것이 아닌가? 법에서 법을 인식하느냐가 진정한 가늠의 척도다.

과거에 매일 사부님과 함께 지내던페이텐(飛天) 학생들과 교사들도 뜻밖에도 여전히 속인의 층차에서 대법과 사부님을 이해하고, 진선인(眞·善·忍)을 이해하며, 수련인이 직면한 시험을 이해하는 것을 보고 나는 반드시 마음가짐을 더욱 바로잡고 수련에는 지름길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느꼈다.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마음을 닦지 않으면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정말이다.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고 수련할 줄 모른다면 매일 사부님 곁에 머문다 해도 소용이 없다.

법에서 대법과 사부님을 수호해야 한다

교훈은 이미 충분하다. 만약 우리 모두가 법에서 대법과 사부님을 수호할 수 있다면, 사악은 절대로 어떤 큰 풍파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미혹의 국면이 조성되어, 사부님께서 사악에게 지속적으로 공격당하실 뿐만 아니라 대법 내부에서조차 ‘비난’을 받으셔야 한단 말인가?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사부님을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수련생은 법에서 진상을 알리자고 하면 항상 “너무 높게 말한다”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사실 그런 수련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그가 주관적으로 세인들의 수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결국 중

국은 여전히 무신론을 선전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초월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객관적으로 그가 아예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상 알리기를 그저 수련 과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여기며, 비록 인정하지는 않지만 평소에 그저 ‘녹음기’처럼 행동한다. 많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읊길 뿐이며, 누군가 관련 의문을 제기하면 ‘표준 답안’을 외울 뿐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 한 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인에게 대법과 사부님의 진상을 알릴 때 만약 속인 층차에만 머문다면, 내가 다년간 관찰하고 결론 내린 바로는 많은 경우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사실 많은 중국인은 나이가 좀 들고 여러 일을 겪었으며, 특히 현재 국학(國學) 열풍과 중의(中醫) 열풍의 배경 아래 전통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나 인과 등 초월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 다시 진상을 알린다면 정말 깊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깊은 내용’은 반드시 주제를 직설적으로 찌러야지 우회해서는 안 된다. 중생은 모두 사람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영성의 제고와 생명의 각성을 위해 왔다. 이 점은 서구의 영성 학설이나 양자 최면 학설 등으로도 동시에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많은 경우 그렇게 미혹되지 않으며 더 명확하게 보인다. 수련인으로서 이러한 시각 아래 육안으로 보이는 가상을 끊임없이 타파하고 심성을 높이며, 자아의 승화와 집착심을 내려놓는 것을 참되게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수련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는 자는 불법(佛法)과 수련을 속

인의 이론처럼 배우고 속인의 각종 관점으로 가늠하려 하기에, 단연코 수련인을 이해하기 어렵고 사부님의 고심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은 속인 층차에서는 이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 역사적으로 일찍이 관련 참고 사례를 남겨두었으나, 당시에는 출가 수련인이라는 소수 집단을 겨냥한 것이었고, 또한 법리가 고심하고 난해한 등의 이유로 널리 전해지기 어려웠을 뿐이다.

법난이 발생한 초기를 돌이켜보면, 대법 전체 수련 집단 내에는 갖가지 장기적이고 굳어진, 아마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강한 집착심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람 마음은 사부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제자들이 반드시 닦아버려야 할 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세력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좋은 ‘빌미’였다. “보아라, 너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두 ‘형상(相)’에 집착하고 장기간 사람의 관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법에서 법을 인식하지 못하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 걸러내겠다!”

“너희가 대법 수련은 성명쌍수(性命雙修)라고 하니, 너희 내부 사람(사오한 자)을 시켜 너희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말하게 하겠다. 법을 전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인류의 최고 수명보다 오래 산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너희가 사부의 생활이 간단하다고 하니, 너희 내부 사람을 시켜 사부가 자주 사람들을 데리고 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을 입는다고 말하게 하겠다…”

“너희가 사부가 바르고 자비롭다고 하니, 너희 내부 사람을 시켜 사부가 자주 화를 내고 고의로 수련생 내부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

하게 하겠다…”

이러한 한 장면 한 장면의 ‘표상’을 수련인으로서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수련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수련은 자신을 닦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닦는 것이 아니며,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해 온 것이다.

대법제자에게는 속인이 말하는 ‘입장’ 같은 것이 없다. 대법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눈을 감고 사오한 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보아라, 너희는 ‘입장’만 중요하고 ‘진실’은 필요 없구나. 맨날 진상을 알리겠다고 떠들더니 정말 이중잣대구나!?”

그래서 그들(사오자)은 자신들이 더 ‘순수’하고 ‘선한’ 사람이며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 사실이 점이 오히려 더 미혹성이 있는데, 만약 사람 마음으로 가늠한다면 결코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전법륜』에는 분명히 “물체가 존재하는 형식은 이런 것이지만, 그것의 표현 형식은 도리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법제자가 세상을 떠났는가? 수량이 확실히 적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십 년간 하루같이 건강하며 약 한 알 먹지 않은 수많은 수련인이 실제로 존재한다. 속인의 각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연 있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인과나 수련인의 겁난(劫難) 등을 말하거나, 역사 속의 수련 이야기를 통해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너무 높게 말할까 봐’ 두려워하여 기회를 놓치지 마라. 물론 절대로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되며, 반드시 듣는 이의 수용 능력에 맞춰야 한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진정으로 인연 있는 많은 사람은 당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사부님께서서는 “해외 수련생 중에 명혜는 속인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줄곧 견지하는 한 부류가 있고, 그래서 명혜 홍보를 거절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사회 중에서도 층차가 나뉘는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 평범하고 평범하게 거리를 걷는 사람이지만,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도덕이 좀 높아 그가 인식하는 것도 곧 다르다. 어떤 사람의 도덕은 좀 더 높아 그가 인식하는 것이 더욱 다르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게다가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도 무척 많고, 심지어 계층이 나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능력하에 그들은 서로 연계가 있고, 더욱 높은 능력의 사람 역시 하나의 계층이며, 그들은 서로 간에 모두 연계할 수 있다. 이 인류사회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고정된 관념으로 인류사회를 보지 말라.”(각지 설법15-2019년 뉴욕법회 설법)

사부님의 인간 세상에서의 언행에 관해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사부님은 수련인이 아니시며 더욱이 ‘그들 중 한 명’도 아니시다. 이 진상은 수련인의 각도에 서지 않으면 우선 자신부터 이해하기 어렵고, 세인에게 명확히 알릴 수도 없다. 특히 지금 같은 말법 시기에 세상의 대다수 종교 조직이나 정교합일(政教合一) 국가의 지도자들은 상당수가 ‘사이비 교주’가 되어 신도들에게는 고생을 가르치고 자신은 향락을 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오자들이 사부님의 생활이 ‘사치스럽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반대로 사부님은 ‘청빈하다’라고 말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함정을 보고 뛰어드는 꼴이 아닌가? 대중 매체를 상대할 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중 매체의 독자들은 『전법륜』을 정독해 본 적도 없고 수련을

동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련하는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깨달음을 높여 속인의 이치를 초월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전도자(傳道者)는 수련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행위라도 마음가짐이 다르면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똑같은 행위라도 전도자는 당신을 성취시키고 원만하게 하며 집착심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일 수 있지만, 속인은 반드시 자신의 집착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한 것이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아, 당신 논리라면 당신 사부가 나중에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변명할 수 있겠네?” 사실 우리는 대법과 사부님 자체를 겨냥한 이 마지막 공격에서, 사악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캐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파룬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부님 본인에게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늘 생각한다. 신앙만 붕괴되면 파룬궁은 순식간에 와해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악이 그렇게 오랫동안 소란을 피웠어도 고작 터뜨린 것이 사부님이 ‘화를 내신다’, ‘콜라를 좋아하신다’ 등과 같은 대수롭지 않은 정보들뿐이다. 앞뒤 맥락을 빼버린 이런 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꾸짖었다고 해서 더 이상 당신 부모님이 아닌 것인가?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이 모두 무효가 되는가? 또한 중공이 가장 원하는 ‘범죄 증거’, 즉 소위 축재(蓄財) 등과 관련해서는 사부님께서 만약 돈을 벌려 하셨다면 그 돈을 가져다 무엇을 하셨겠는가? 진짜 사이버 교주들을 보라. 그들은 일단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는가? 여자, 사생아, 파티, 호화 도박, 성적 변태 행위, 마약, 사치와 향락에 빠져든다….

탄압 초기 사부님께서 아직 중국에 계실 때부터 중공은 이미 칼을 갈고 있었다. 그로부터 30~4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뜻대로 되었는가?

맺음말

사실 현재의 형세에 직면하여 우리가 완전히 수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 개인 수련 시대를 떠올려 보라. 선종의 2대 조사 혜가(慧可)는 달마에게 법을 구하며 수행의 결심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팔을 스스로 잘랐고, 마르파 상사는 밀라레파가 공양을 적게 했다는 이유로 끝없이 고통을 주며 체벌했다. 이러한 고대 수련 이야기를 요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아! 자해를 교사하다니, 종교의 이름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구나!”라고 할 것이다. 전통적인 사찰 수행에서도 정오 이후 음식을 먹지 않거나 불도단(不倒單, 평생 누워서 자지 않는 것) 하는 것은 다반사지만, 오늘날 무신론 선전에 오도된 속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딱지를 붙인다.

반면 우리를 보라. 사부님께서서는 거듭 우리가 속인 중에서 수련하며 “최대한도로 속인의 상태에 부합”(싱가포르 법회 설법)하라고 훈계하셨다. 우리는 정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고대 전업 수련자들 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속인 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혜를 통해 얇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상을 명확히 알릴 수 있다.

노아의 방주와 눈 붉어진 돌사자 이야기 비교

글/ 천원(天圓)

[명혜망] 노아의 방주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유하는 전설로 성경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배경은 신이 인류의 죄악이 도처에 깔린 것을 보고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오직 한 명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기기로 한 것이다. 신은 노아에게 초대형 배인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해 그가 가족과 동물을 한 쌍씩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 홍수가 끝난 뒤 생명을 재건할 수 있게 했다.

이야기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신의 지시를 따랐고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 속에서도 신의 요구에 따라 방주 건조를 마쳤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대홍수가 닥쳤을 때 모든 생물이 물에 잠겼으나 오직 이 방주만이 수면에 떠올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을 보호했다.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지속됐고 마침내 수위가 점차 낮아져 방주는 아라라트산에 머물렀으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인류와 동물의 번식을 다시 시작했다.

‘눈 붉어진 돌사자’ 이야기는 중국 전통문화에서 유래했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이미 아주 나빠져서 하늘의 뜻은 이 마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보살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거지로 변신해 마을에 와서 집집마다 구걸했다. 그러나 밥 한술 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부처를 공양하는 집도 없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이르러 한 할머니가 부처에게 향을 피우는 것

을 발견하고 다가가 구걸했다. 할머니는 난처해하며 “내게는 이 밥 한 그릇뿐이니 반 그릇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반 그릇은 부처님께 공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보살은 할머니가 부처에게 경건한 것을 보고 구걸을 마친 뒤 마을 어귀에 있는 돌사자 한 쌍을 가리키며 “언제라도 이 사자의 눈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 홍수가 날 것이니 어서 산으로 도망치시오”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곧바로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마을 사람 중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돌로 만든 사자 눈이 어떻게 붉어질 수 있느냐며 그녀를 비웃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냉소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간청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빈둥거리던 불량한 젊은이 몇 명이 할머니를 놀리려고 붉은 물감으로 이 돌사자의 눈을 붉게 칠했다. 할머니는 돌사자의 눈이 붉어진 것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마을 사람들을 향해 “빨리 도망쳐요! 홍수가 와요!”라고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끊임없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산으로 도망쳤다.

과연 홍수가 났다! 할머니가 도망치며 뒤돌아보니 홍수가 순식간에 불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됐고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동서양 문화를 비교해 보면 두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신앙에 대한 시험, 신의 보호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는 신이 유일하게 남은 좋은 사람(노아 일가)을 구원하는 방식이었고, 건조 과정은 이 가족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다. 반면 눈 붉어진 돌사자 이야기에서 ‘돌사자의 눈이 붉

게 변하는 것’은 ‘홍수의 도래’와 같으며 하늘과 마을에 유일하게 남은 선량한 사람(할머니)과의 약속이고,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구원의 방식이다. 둘 다 초자연적인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 이야기 모두 세상을 멸망시키는 재난인 대홍수와 관련이 있다. 대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있다.

차이점은 주로 노아의 방주가 서양 문화,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래했으며 인류에 대한 신의 심판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 반면 눈 붉어진 돌사자는 좋은 사람에 대한 신의 연민과 악인에 대한 버림을 보여주지만 직접적인 종교를 배경으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생각해보았는가? 자신이 어떤 신앙 체계에 속해 있든 대홍수와 같은 재난이 닥칠 때 초범적인 힘의 보호가 없다면 인류는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그 초범적인 힘을 당신이 하나님, 부처, 보살, 하늘 혹은 창세주라고 부르든 간에 평소에 그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량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생사가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위엄’이 당신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여기고 손을 내밀어 구해줄 것이다.

천국악단에서의 나의 수련 체득

글/ 유럽 천국악단 단원

[명혜망] 저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2006년에 법을 얻었습니다. 오늘 서술 방식으로 지난 몇 년간 악단에서 활동하며 겪은 수련 체득을 사부님과 수련생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천국악단 초기 시절

2008년 파리에서 열린 한 퍼레이드에서 저는 처음으로 천국악단을 보았습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 저는 신호등 옆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당신들은 누구인가요? 이 활동은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퍼레이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대열 맨 앞, 악단과 가까운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록 제가 쉽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오직 그들 곁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고 한동안 평정심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6년 뒤인 2013년이 돼서야 저는 마침내 그 감동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천국악단의 일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저는 처음으로 코펜하겐에 가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저는 플루트 연주 실력이 충분히 좋지 않았고 스스로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으나, 발생한 몇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사실은 사부님께서 제가 반드시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암시해 주시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경험은 제가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을 준비할 때 발생했습니다. 뜻밖에도 2등석 승객이었던 저희 중 많은 이가 무료로 1등석으로 승급됐습니다. 승무원의 태도가 냉담했기에 저는 차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퍼레이드가 곧 시작되려 할 때였습니다. 스태프가 한 미국 사진작가가 이번 활동을 위해 특별히 서둘러 왔기 때문에 악단 전체가 근처 광장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당시 스페인 수련생에게 “전 아직 악단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사진을 찍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향해 웃으며 “그냥 거기 서 계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저와 천국악단의 신기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플루트 연주에서 직면한 어려움

제가 직면한 한 가지 난제는 바로 좋은 선생님을 찾아 올바른 플루트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생님은 이 방면에서 아주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저라는 학생을 매우 중시했고 저와 함께 대법제자들이 창작한 노래들을 자주 연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를 도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그녀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약 2년 뒤 저는 우리 시에서 가장 우수한 음악 선생님 중 한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지도하에 저는 많은 나쁜 습관과 잘못된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매끄럽고 맑은 소리를 내기 어려웠고 많은 경우 호흡이 길게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몇 시간씩 연습해도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례 심성 시험

을 통과한 뒤 시험 삼아 플루트를 불어보았는데 갑자기 제게 뚜렷한 진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저를 동력으로 가득 차게 했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수련의 제고야말로 연주가 갈수록 좋아지는 핵심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 당시 저는 한편으론 직장 동료들을 상대하고 한편으론 각종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때로는 통과하고 때로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저는 수련 속에서 진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악보를 외우는 도전에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처음 퍼레이드에 참가했을 때 제가 악보대를 팔에 묶고 악보를 보았는데 길을 가는 내내 악보대가 자꾸 떨어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정말 악보를 다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사부님 감사합니다’와 ‘불은성악’처럼 복잡한 곡들이 오히려 다른 곡들보다 기억하기 더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두 번 플루트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12세 소년이 쓰던 야마하 제품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제 선생님의 플루트입니다. 매번 새 플루트를 받을 때마다 저는 무척 기뻐고 매우 아꼈으며 항상 세심하게 관리해 그것들이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퍼레이드 중 안으로 찾다

제가 도대체 퍼레이드에 몇 번 참가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매번 연주 기법을 연마하는 것이었고 저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했으며 제가 안으로 찾는 법을 더 잘 알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퍼레이드를 할 때 제 마음가짐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훈련과 준비 부족으로 제 주의력이 항상 악단 주변의 일들에 끌려갔고 종종 지휘의 리듬에 주의하지 못했습

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차 퍼레이드 중 밖을 보기보다 더 많이 안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다른 수련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주의했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지 보았습니다.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종종 이러한 통제욕을 드러냈습니다. 이따금 수련생에게 바지 단추를 채우라고 일깨워 주거나 머리카락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은 문제없지만 항상 이런 사소한 일들에 시선을 고정하고 놓지 않는다면 다소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 앞의 수련생이 항상 퍼레이드 중 실수를 하고 대열을 맞추지 못하거나, 곡을 시작할 때 지휘의 명령에 주의하지 못해 악기를 들면 제 마음은 유독 몹시 괴로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때때로 현지 수련생들이 질서 유지를 돕거나 보안을 제공할 때 우리 대열 앞에서 걷거나 우리 곁을 급히 지나가며, 심지어 때로는 부주의로 우리와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더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적은 원망이 아니라 제 안으로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모든 주의력을 지휘와 명령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해 저희는 프라하에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찍 도착해 한 베트남 수련생의 아파트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다른 베트남 수련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바닥에서 잠을 잤으나 그중 한 명이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았고 마음이 몹시 불편해 결국 그녀에게 저는 법공부를 하고 있어서 주의력을 집중할 수 없다

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악단 단원이 아니었고 저 역시 그녀를 알지 못했기에 제가 그녀에게 목소리를 조금 낮춰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무척 불쾌해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도 모두 저를 향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법공부를 하며 제 자신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른 두 베트남 수련생(A와 B)과 함께 전체 악단이 리허설을 위해 묵는 숙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그들은 채소와 진귀한 과일이 가득 담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 거의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몇몇 안내관이 있었지만 위에는 온통 체코어여서 저희는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저희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버스에 올라탔으나 한 정거장 만에 또 누군가 저희에게 방향이 틀렸으며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수련생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여행 가방을 먼저 차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차 위로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5~6차례 반복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차에 오르고 내렸으며 매번 방향을 잘못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무거운 여행 가방을 옮기던 두 수련생은 무척 화가 나서 자신들의 언어로 쉽 없이 저를 원망했고 또한 좌절감을 띤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이미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현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만 할 줄 알았기에 저는 여전히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멈춰 서서 “그만 말하고 발정념을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신들을 여

기에 두고 가버릴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는 함께 발정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호텔로 가는 첫 번째 버스는 이미 떠났고 어느 정류장에서 반드시 다른 차로 환승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저희에게 내릴 곳을 짚어주었고 마침내 저희는 순조롭게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버스를 타려 준비할 때 A가 또 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녀에게 “구글 지도를 켜세요. 이제 당신이 우리를 호텔로 안내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길을 잘못 들었고 저희는 원래 정시에 리허설에 도착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을 또 낭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을 안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온해졌고 속으로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 자신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으로 수련생이 그 채소가 가득 찬 큰 여행 가방을 옮기며 아파트를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우리가 지금 리허설을 하러 가는 건가, 아니면 채소 시장에 가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제 태도 역시 좋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수련생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때 한 말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한데 더해져 곧 교란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평온해졌을 때 저는 사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흔히 모순이 생길 때, 사람의 심령(心靈)을 자극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쓸모없으며 제고하지 못한다.”(전법륜)

이후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A를 찾아갔는데 그녀 역시 저와 같은 플루트 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B에게도 사과했는데, 비록 그녀가 당시 저보다 더 화가 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저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제게 대법제자로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모두 자신을 안으로 찾아야 하며, 말하는 것을 신중히 하고 모든 것을 반드시 법으로 가늠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분노는 수련인이 가져야 할 상태가 아니며 이 모든 경험은 모두 저의 심성 제고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서 만난 도전

올해 로테르담의 퍼레이드는 제게 각별히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많은 교란과 마주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때로는 플루트에 갑자기 공기가 들어가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때로는 머릿속이 일순간 백지가 돼 악보가 아무리 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하려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줄음까지 몰려와 두 다리가 돌처럼 무겁게 느껴져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멈춰 섰을 때, 저희가 서서 움직이지 않을 때 저는 다른 한 수련생의 눈이 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른 공간의 정사(正邪) 교전이 필시 매우 치열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어(論語)’를 외우기 시작했고 서서히 교란이 비로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7월 저희는 런던에서 퍼레이드에 참가할 때 적잖은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전반부 내내 비가 내려 옷, 구두, 장갑, 악기가 전부 비에 젖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했고 각종 교란이 연달아 출현했지만 모두 저희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순조

롭게 퍼레이드를 완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매우 많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사부님을 협조해 중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각종 도전과 마주하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저희를 위해 박수를 쳤으며 저희의 음악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박자에 따라 유쾌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저로 하여금 모든 불편함, 고통과 좌절을 잊게 합니다. 많은 때 저는 모두 감동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울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악기를 잘 볼 수 없어’라고 일깨웁니다.

맺음말

모든 책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연주 수준 제고를 도왔고 또한 전체 악단이 오늘날의 수준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저는 또 최근 몇 년간 줄곧 제 곁을 동반해 준 수련생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수련 속에서 저의 끊임없는 진보를 도와준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2014년 마드리드 법회에서 저의 경험을 나눌 때 저는 “천국악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게 있어 일종의 크나큰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2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같은 심정을 품은 채 한 번 또 한 번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글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국악단 창단 20주년 법회 원고)

통증, 연공, 갈등은 안으로 찾는 기회

— 천국악단에서의 작은 수련 이야기 —

글/ 독일 천국악단 연주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저는 천국악단(天國樂團) 작은북 팀에 합류했습니다. 거의 20년간 수련하면서 평소 생활과 업무 속에서 대법(大法)의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행하고자 노력해 왔기에, 속인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었고 갈등이나 충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악단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수련생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수련과 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 신체적인 감내

처음 천국악단 활동에 참가했을 때는 꽤 큰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퍼레이드 중에는 곡 연주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행진할 때는 지휘자를 봐야 하고, 노면 상태와 장애물, 그리고 행인들의 반응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외부 영향으로 인해 자주 사상을 완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연주에 전념하자고 스스로를 일깨워야 했습니다.

퍼레이드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북 멜빵이 두 어깨, 특히 왼쪽 어깨를 심하게 짓눌러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때로는 너무 심해 왼쪽 팔의 동작이 제한될 정도였습니다. 사부님께서 ‘홍음(洪吟)-마음고생(苦其心志)’에서 “백 가지 고생 한꺼번에

내리거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저 신체적인 약간의 통증일 뿐 백 가지 고생까지는 아니니, 며칠 지나면 관찮아질 것이고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통 다음 날 아침이면 거의 아프지 않았고, 이튿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신체적인 감내 역시 사실 업(業)을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매번 퍼레이드가 끝난 후 어깨 통증이 1주일 정도 지속됐습니다. 그해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한참 동안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왼팔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면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거의 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 상태가 정상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수련생과의 교류 중에 신체적인 병업(病業)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수련생은 자신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게 어떤 단계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하기를, 처음에는 매번 천국악단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신체적, 심성적으로 각종 교란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이나 활동 장소로 가는 길에 겪는 각종 번거로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활동에 참가했고 지금은 훨씬 순조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설령 문제가 생겨도 즉시 정념(正念)으로 대하며 번거로운 일이 자신을 교란하여 악단 공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걱정할 게 있는가, 다 내가 예전에 지은 업인데 지금 그것을 닦아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째 공연이 시작되기 전, 이 통증은 갑자기 모두 사라졌고

악단 공연 참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퍼레이드 중에 왼쪽 어깨가 아프긴 하지만 이미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2. 연공에 대한 이해

평소 저는 매일 연공(煉功)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악단 활동에 참가할 때마다 수련생들의 이끄는 따라 아침에 함께 연공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 함께 숙박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연공 중에 저는 자신의 동작이 요구 사항에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곤 합니다.

제2장 공법을 할 때, 저는 머리 위에서 포륜(抱輪)하는 두 손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확인해 보니 오른손이 왼손보다 높았고, 앞뒤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자세를 교정하고 다시 눈을 감으면 오히려 두 손이 어긋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바로 제가 맞다고 느꼈던 그 느낌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신체 기관에 대한 감각에는 분명히 큰 오차가 존재합니다. 연공을 통해 제 감각에 분명한 오류가 있음을 보았고, 이는 다른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확실히 맞다고 여기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어찌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욱 겸허하게 ‘혹시 내가 어디가 틀리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고 자주 자문해봐야 합니다. 연공 중에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은 사실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제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연공할 때마다 사부님의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하고 요구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제3장과 제4장 공법을 할 때, 사상이 조금이라도 딴 데로 흐르면 즉시 사부님의 구령보다 동작이

빨라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부님의 구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구령을 들은 후에 동작을 하도록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제5장 공법이 난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연공을 시작했을 때 반가부좌(單盤)로 겨우 15분을 버텼는데, 결가부좌(雙盤) 1시간에 도달하기까지 총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저는 ‘내가 결가부좌 1시간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마 내 조건 자체가 부합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가뿐하게 오랫동안 결가부좌를 하는 다른 수련생들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사부님께서 『휴스턴 법회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에는 결가부좌할 것을 요구한다. 천천히 연마하라. 모두 결가부좌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80여 세 노인도 점차적으로 다 결가부좌하는데 문제가 없다. 오로지 당신이 연마만 하면 천천히 다 틀어올릴 수 있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부님과 법을 믿어야지, 자신에게 핑계를 대지 말자. 그저 계속 연공하고 계속 업을 닦다 보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평소 법공부를 할 때 최대한 다리를 틀고 공부했으며, 생활 속의 다른 기회에도 최대한 가부좌 자세로 앉았습니다. 가끔 온종일 대법 활동을 마친 후에는 두 다리가 붓고 아프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리를 틀기 시작할 때는 매우 아프고 때로는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지만, 제 체험으로는 시작할 때의 격렬한 통증 속에 오히려 펼쳐지는 듯한 아름다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몇 분을 견디고 나면 통증이 빠르게 줄어들고 에너지가 소통되는 시원한 느낌이 저를 매우 묘하게 만들었으며, 기력도 아주 빨리 회복됐습니다.

저의 결과부좌 시간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대부분 심성의 돌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心性(썸썸)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에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心性(썸썸)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상 물질에 필연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전법륜)

3. 갈등은 안으로 찾는 기회

수련자들이 함께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수련하고 제고할 기회입니다. 한번은 천국악단 활동 기간에 저녁 숙소 방에서 한 수련생과 올해 묵었던 호텔들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도시의 호텔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현지 수련생이 숙소를 구할 때 게으름을 피운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상대 수련생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려 했으나,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으며 현지 수련생이 게으름을 피운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이미 안일심이 크게 발동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 함께 연공할 때 마침 그 도시의 A 수련생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호텔의 부족한 점을 피드백해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A는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적당한 호텔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져서 호텔 방의 부족한 점을 피드백하는 것과 논리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자극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때 연공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저희는 불친절한 대화를 멈췄습니다.

연공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련인인데 같듯이 생겼을 때 다른 수련생의 문제를 찾아서는 안 되며,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한다.’ 갑자기 A가 제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논리 어디가 맞지 않았을까요? 그때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의 전제가 틀렸다.’ 어젯밤 저는 현지 수련생이 게으름을 피웠기에 악단이 조건이 좋지 않은 호텔에 몇 번이나 묵게 된 것이라고 단정 지었는데,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A 수련생은 제가 어젯밤에 한 말을 알지 못했지만 제 문제의 핵심을 짚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입을 빌려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수련생에게 그러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으며, 수련이란 그 속에서 자신의 집착을 찾아 닦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며 자신의 층차를 높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저의 안일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 중에 작은 일이란 없습니다. 악단은 우리에게 음악으로 사람을 구도할 기회를 주었으며, 동시에 함께 수련하고 제고하는 환경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부님의 안배와 수련생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깨달음이며 부족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국악단 창단 20주년 법회 원고)

마음가짐을 바꾸고 원망을 내려놓다

글/ 유럽 천국악단 단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수련에는 기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꽤 잘 수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똑바로 설 수도 없었으며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내려오려 할 때 중심을 전혀 잡을 수 없었고 어지럼증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약간 당황해 발정념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규정 때문에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평형 기관’의 문제라며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 제가 ‘불균형’한 상태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나 혈압 등 그가 언급한 다른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균형을 잃었다’는 말만 온몸에 메아리쳤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최대한 법 공부를 하고 발정념을 했으며 몇 주가 지나서야 서서히 회복해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불균형’ 상태를 겪은 후 저는 더욱 깊이 안으로 찾기 시작했고 이런 불균형을 초래한 근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형과 누나들을 우러러보았지만 그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형과 누나들이 차례로 부모님 집을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릴 때 저는 아직 어린 청년이었고 혼자 부모님과 집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셨지만 명백한 편애를 보이셨고 종종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일부 자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주 불평하며 자신들이 사회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불평과 부정적인 감정은 저에게 영향을 미쳐 마치 어두운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을 덮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은 늘 저와 함께했는데 아버지와 형이 모두 금관악기를 연주했고 아마추어지만 수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8살 무렵 아버지는 저를 현지 목관 악단에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자란 곳에서 목관 악단과 군악대는 전통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거의 모든 악단이 음악회를 열었고 때때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공연은 악단의 음악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점차 경쟁 심리를 키우게 했고 강한 자존심과 원망심을 기르게 했습니다. 이런 경쟁 심리는 제가 독주 대회에 참가하면서 더욱 강해졌는데 당시 저는 독주곡을 연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마스트리히트 음악원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현대 작품의 곡목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 음악 연주에 대한 자신감도 점차 상실했고 결국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수업을 그만둔 후 수년간 저는 줄곧 이를 후회했고 제 원망심도 커졌습니다.

안으로 찾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관념이 형성되면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데, 사람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사상을 좌우지할 수 있다.”(전법륜2-불성)

수년간 수련하는 과정에서 저는 늘 아직 건드리지 못했거나 닿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층차를 돌파하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나 갈등을 만났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자비롭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또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려 할 때면 종종 두려운 마음에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우리집에는 25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의존하며 자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들과 지내면서 저는 자주 자비와 인내를 닦으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조급함을 보이며 시종일관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와 이런 난을 겪어야 하는지 자주 생각했는데 이것은 모두 제 원망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지만 되돌아보니 사실 저 역시 부모님이 제 어릴 적에 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악단에서 저는 대면 훈련, 지역 훈련 및 온라인 훈련을 통해 단원들이 수준을 높이도록 지도해 왔지만 때로는 그들의 진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등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다

‘마음의 불균형’이란 경고를 겪은 이후 저는 제 마음가짐을 바꾸고 원망하는 감정과 좋지 않은 생각을 제거하겠다는 더욱 확고

한 염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염원을 품은 이후 저는 이런 원망하는 느낌과 좋지 않은 마음가짐이 진정한 제가 아니며 제 본성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깊은 내면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강력한 정념으로 그것을 배척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 생길 때마다 저는 즉시 알아차리고 스스로 일깨우며 매우 강력한 정념으로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감지할 때마다 마치 제 내면의 깨달음이 매번 깨어나 자신의 정념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 본성을 가로막으려 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직시하고 쫓아버립니다.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마치 더러운 외투를 벗어 던지는 것 같거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박해 온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 저는 경각심을 유지하고 정념을 굳건히 하며 대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순간 저는 돌파와 제고를 이루었다고 느끼며 마치 구름 위에 있는 듯 원망과 불공평,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 듭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자(惡者)는 질투심의 소치로 자신을 위하고, 화를 내며, 불공평하다고 한다. 선자(善者)는 늘 慈悲心(츠삐이썬)이 있어, 원망도 증오도 없이, 고생을 낙으로 삼는다. 각자(覺者)는 집착심이 없으며 세인들이 환각(幻)에 미혹됨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장진요지-경지)

사부님의 이 경문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번 이 글을 읽거나 외울 때마다 내면의 악한 생각이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매 순간 더욱 평온해집니다.

지난 몇 년간 아들과 지내면서 겪었던 문제들이 줄어들었고 평온한 방식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더욱 냉정해지고 더 많이 이해하며 자비로워졌음을 느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니 부모님에 대해서도 더 평화롭고 자비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악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 어떤 면에서든 단원들에게 불공평하거나 무례하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이제 저는 걱정이나 우려 없이 훈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협조인으로서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해내야 하며 우리 음악 수준을 의심하는 것과 같은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더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음악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놀라운 점은 악단 단원들이 다른 많은 항목을 완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명을 다하고 현재의 음악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 저는 이것이 사부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 안에서 바르게 수련의 길을 걷는 것이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줄곧 인도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현재 제 층차에서의 심득 교류입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악단 창단 20주년 법회 원고)



▲ 2026년 2월 17일 밤, 낭트 시테 데 콩그레(Cité des Congrès de Nantes)에서 열린 선원세계예술단의 첫 공연이 매진됐다. 22일 선원을 관람한 프랑스 역사학자 알랭 콜라스(Alain Collas)는 “공연 시작부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건 처음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정말 깊은 감정의 울림이었습니다” “공연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신앙, 겸손, 이타 그리고 사랑입니다.”라고 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11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848만 924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